

담당부서 : 산업인력과

담당자 : 윤동건 파트장,
강태욱 주무관

연락처 : 055-211-3382,
055-211-3383

경남도, 중장년 고용지원 대상 40대까지 확대한다

- 고용장려금 지원 연령 50~64세 → 40~64세로 확대
- 제조업에서 전 직종으로 확대... 여성 중장년층 등 수혜 대상 넓혀

경상남도(도지사 박완수)가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‘중장년 내일이음 50+사업’의 지원 대상 연령과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.

‘중장년 내일이음 50+사업’은 도내 중소·중견기업이 중장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2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.

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존 50~64세였던 지원 대상 연령을 40~64세로 확대하고, 제조업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 업종도 전 직종으로 넓혔다.

특히, 지원업종을 전 직종으로 확대하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, 여성 중장년층의 취업 및 고용장려금 수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지원 대상은 40~64세 중장년을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도내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이며, 사업이 진행되는 8개 시군(창원, 진주, 사천, 김해, 거제, 함안, 고성, 하동)에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.

신청 기간,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*로 문의하면 된다.

* 창원시 ☎225-3343 / 진주시 ☎749-8179 / 사천시 ☎831-3060 / 김해시 ☎330-3185 /
거제시 ☎639-4146 / 함안군 ☎580-2683 / 고성군 ☎670-2493 / 하동군 ☎880-2193

강두순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“지원 연령을 40대까지 확대하고 지원업종을 전직종으로 넓히는 한편, 근로계약 요건도 완화해 보다 많은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기업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”며, “앞으로도 중장년층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‘중장년 내일이음 50+사업’은 경남도 직접사업으로, 추진한 지 2년 차를 맞은 사업이다. 지난해 116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1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,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인력과 강태욱 주무관(055-211-338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